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고찰

김상진*

요 약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Security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비록 산업계에 비하여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방면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으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경호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학문적인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한 산학간의 합의점 마련. 둘째,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적체계의 정립. 셋째, 교육체계의 정비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계 정립 방안의 마련. 넷째, 산업계와 상이한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학이 학문으로써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네 가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Study for academic establishment of phase of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Kim Sang Jin*

ABSTRACT

Security Service is the study for social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ircle, it has only been 18 years, though, many-sided scholars have been interested in this field and tried. The present Security Service, however, has several problems, so it is difficult to gain recognition as the value of learning. To achieve this, several kinds of prior tasks should get solved. First, Preparation for agreement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about the academic concept and establishment of range. Second, Set up the School Register System for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identity. Third, Preparation of the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 system. Fourth, Study Direction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world. (Unconcern) Therefore, the alternatives centered on some prior tasks will be suggested to enhance the identity and value of Security Service as the study.

Key words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Security Industrial , Academic Establishment of Identity

접수일(2013년 10월 14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23일)

* 백석문화대학교 외래강사

1. 서론

경호학은 security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써, 경호, 경비, 방호, 재난, 대테러 활동 등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호학은 체육(무도)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활동과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에 설립된 경호관련학과들의 교수진들을 살펴보면, 80%이상이 무도나 체육 전공자로 구성된 실정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호 관련학과들의 커리큘럼은 무도 또는 체육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이유는 학생모집이나 학과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정책적 목적으로 학과가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과 대학별로 무도대학, 체육대학, 법정대학, 경호대학 등 각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과의 명칭들도 학교실정에 따라서 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비서학과, 태권도경호학과, 경호합기도과, 경찰경호학과, 경호스포츠학과, 의전경호학과, 무도경호학과, 경호경비학과 등 학과의 명칭도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위 명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학문에 대한 대분류에 따르지 않고, Y대학에서는 ‘경호학 박사’, K대학에서는 ‘경호안전학 박사’라는 독립적인 학문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문의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문적인 내용은 공경호(경호실)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탓에 학문이 산업계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학자들마다 경호학에 대한 개념을 각자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어서 학문의 정체성은 물론 더 나아가 경호학의 학문적인 위상은 심각한 “혼돈” 상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호학은 교육목적,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효과에 관하여 학계에서 합의 또는 일관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단지 또 다른 독립학문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경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각 대학에서의 실정과 학자들의 개인적 특성(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경호학이라는 학문이 그 실정에 맞게 체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경호학 전공자들에게 심각한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정체성 확립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이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호학이 학문의 체계에 따라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여지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경호학의 개념과 범위설정의 모호성
2.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
3. 교육체계의 정비부족
4.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

2. 이론적 배경

2.1. 경호학의 태동과 목표

한국에서의 경호경비 산업은 195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이 되었으나^[4], 학문적으로는 국내 대학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된 연도를 기준으로 약 18년 정도로 산업계의 시작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호학은 갈수록 범죄의 흉폭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면서 타인에게나 일어날만한 악몽 같은 사건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산업계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면서 경찰력의 한계에 따른 민간차원에서의 연구가 절실희지면서 대학단위에서 학과가 설립된 것이다.

1995년에 경호학을 광의적 개념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안전관리학과’가 설립되었고, 1996년에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용인대학교에서 ‘경호학과’가 설립이 되었으며, 1997년에는 경기대학교 체육학부에서 경호안전전공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 대불대학교 등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개설이 되었다.

이렇듯 경호학의 태동은 각 대학에서 학문적 근간

1) 4년제 경호비서학과 기준.

을 체육·무도에 비중을 두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특성은 산업계와 접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괴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2.2. 경호학의 목표

경호학의 목표는, '사회의 범죄에 대응하여 우수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출하고, 안전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안전관리시장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여주는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3]

이러한 경호학의 목표를 산업적인 측면과 결부하여 나타낸다면, '사회질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행해지는 안전활동으로, 수요자(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회 안전 서비스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호학은 신변보호라는 경호의 개념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 경비, 대테러활동, 재난방지 등 'Security' 라는 총체적인 안전보호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목표의 설정은 경호학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다의적인 정의의 난립과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호학 연구의 편재성과 중복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3. 경호학의 연구 분야

경호학은 Security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소방과 관련하여 방재, 방화, 재난 등을 관리하는 학문이며, 인적재해는 강력범죄 및 단순범죄, 대테러활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호업에서 시설경비·특수경비·기계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는 도난·화재 그리고 테러 그 밖의 손실을 예방하는 활동이고, 신변보호는 개인이나 단체 및 사회 등을 대상으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예방활동이며, 호송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유가·증권 그 밖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즉, 경호학

은 산업계에서의 활동을 근간으로 인적재해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선결과제

3.1. '경호학'의 개념과 범위설정의 모호성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호위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호의 개념은,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²⁾

즉, 학계에서는 신변보호는 호위라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공경호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경계·순찰 및 방비 즉, 경비라는 개념까지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경호의 개념을 기초로 한 학자들은 경호의 개념을 호위(신변보호)와 경비(순찰·경계, 방호) 양자 모두를 '경호'라는 단어로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정법상 「경비업법」을 따르고자 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신변보호업을 경호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네 업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특수경비업, 기계경비업)에는 '경비'라는 단어 명시되어 있지만, 신변보호업에는 경비라는 단어가 없으며, '신변보호'를 '경호'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경호'라는 용어가 묵시적으로 '호위' 또는 '신변보호'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경호'나 '경비'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경호관련학과 들이 '경호'라는 단어 즉, 호위 및 신변보호를 강조하기 위하여 무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도나 체육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호학’이라는 학문은 대학에서 경비라는 개념도 마땅히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Security’ 보다는 ‘Safety’에 무게를 더 두고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안전은 물론 소방, 방재, 재난과 같은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경호학의 성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적 개념의 불명확한 이해는 학문에 대한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2.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

현재 우리나라 경호학은 학문의 정체성(academic identity)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경호학의 기본성격(개념)에 대한 정체성 위기가 학적체계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몰고 온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예로, 경호관련학과가 체육대학에, 무도대학에, 법정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경호단과대학을 설치하고 있다.

학과 명칭에서만 보더라도 학적체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6월 기준, 전국대학에 개설된 경호관련학과는 4년제 25개, 2년제 43개(전문 학사과정 포함) 총 68개가 있는데[9], 명칭은 저마다 ‘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대권도과’, ‘경호합기도과’, ‘경호경찰학과’, ‘경호스포츠학과’, ‘의전경호과’, ‘무도경호학과’, ‘경호경비학과’ 등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명칭이 편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호학이 대학들의 필요에 의하여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경호학이 고객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경비원들의 무도실력이나 스포츠능력 등에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특성화를 고집한다면, 향후 10년 후에 경호학은 과연 체육 및 무도, 레저스포츠 관련학과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지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석사 및 박사 학위명에서도 전술한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경호학 박사’, ‘경호안전학 박사’ 등의 명칭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호학이 학문적 근간이 어디인지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대학원내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심지어 교육대학원 등에서 경호학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경호학을 전공으로 삼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적체계를 살펴보면, 이 시점에서 경호학이 자연과학인가 사회과학인가, 순수과학인가 응용과학인가, 직업학문인가 이론학문인가, 인접학문인가 독립학문인가, 학문의 십자로인가? 또는 정착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급히 해답을 강구해야 한다.

김경식(2010)에 의하면, 한국의 경호학은 사회학·행정학 그리고 스포츠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문[2]이라고 판단하였다.³⁾ 전술했듯이 학과명칭, 교과내용, 학과교수들의 학위명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체육관련 내용이 과도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전혀 다른 길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민간경비 산업 가운데 신변보호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총 3,836개 업체 가운데 527개로 불과한 13.7%⁴⁾에 지나지 않는다.[10] 그렇다면, 대학교육으로써 경호학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교육체계의 정비부족

공배완(2006)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4년제 대학의 경호비서학과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무도 및 스포츠분야(30.9%), 경호경비분야(21.8%), 법학 및 사회과학분야(15.4%), 비서의전분야(7.2%), 컴퓨터분야(6.3%), 교양 및 기타(6.3%), 경찰분야(5.4%), 어학분야

3) 한국경호경비학회에서 발간되었던 11년간(1997-2007)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의 학위별 참여도는 경호학 7건(3.1%), 범죄학 2건(0.8%), 경찰학 12건(5.3%), 이학 30건(13.3%), 행정학 24건(10.7%), 법학 39건(17.3%), 정치학 11건(4.9%), 공학 6건(2.7%), 교육학 2건(0.8%) 등으로 법학 전공자 참여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학(체육), 행정학 순이었다(안황권·김상진, 2008: 195).

4) 경비업은 자격조건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0.9%) 등으로 편성비중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도 및 스포츠분야에서 교과목 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경호의 의미가 아직까지 사회과학의 범주보다는 체육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과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정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대학들이 교과과정을 스포츠나 체육, 무도에 편중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특히, 학생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지방대학의 경우, 인기학과에 대한 명칭을 특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또 해당학과 교수들의 전공이 체육이나 무도, 스포츠 등의 전공자라는 사실은 그 원인으로서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포츠센터나 휘트니스 클럽, 무술도장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려는 학생들은 체육학과나 레저스포츠학으로 전공을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학과가 지향하는 형태가 이렇다보니 학생선발과정에서도 실기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육관련학과와 선발기준이 다르지 않다.

또한, 경호학이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교육내용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호관련학과가 공경호의 이론으로 출발해 왔기 때문에 공경호 이론에서 눈높이를 고정시켜 민간차원에서의 현실성을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호학은 민간기업의 영리 추구 활동이므로 공경비(경찰·경호처)와 완전히 분리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재가 결국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양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학교교육과 사내(업체)교육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는 학교교육과 사내교육의 목적, 주제, 내용, 방법, 효과 등에 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즉, 한국 실정에 맞는 경호학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립하는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4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

연구방향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곧 앞서 언급했던 학적체계나 교과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대분류 작업에 속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면 경호학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경호학 위상정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금과 같은 학문의 혼돈을 야기 시킨 중요한 이유는 학계에 이런 합의된 체계가 부재한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경호학에서 연구의 영역은 총론으로는 개론, 이론, 방법론, 역사, 법제론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론으로는 민간경비(시설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포함), 경비업법, 조직경영, 범죄, 테러, 소방, 민간조사(탐정), 무도 등 그 외에도 여러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황권·김상진(2008)은 한국경비학회에 11년간(1997-2007) 기고되었던 22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 주제별분류에 의해서 민간경비(103편 45.7%), 공경비(경찰·경호실/33편 14.6%), 범죄(33편 14.6%), 소방·안전(26편 11.5%), 테러(26편 11.6%), 기타(4편 1.8%) 등 5개의 영역으로 대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민간경비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간경비 관련 논문은 또 다시 산업, 경영, 교육, 법제, 무도, 역사, 공·사협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체점은 이 중에서 순수 업종별(신변보호, 호송, 기계, 특수, 시설경비)로 연구한 논문은 단지 14편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관련된 연구는 20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7]

대부분의 논문이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간접적인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민간경비 시장에서 시설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270개의 경비업체 가운데 3,144개나 등록되어 있다. 물론 업종허가가 중복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비율로 표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장에 96%가 시설경비를 허가받고 있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에 대한 순수연구는 불과 1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시장성의 현실성과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보다는 연구자들의 전공 및 관심분야에 대해서만 지나치

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들이 실적위주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형식적 차원의 논문들이 작성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관분야의 학문영역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경호학과 매치(match)시킨 응용논문의 형태 또한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분야에서 다루진 적이 없는 영역을 중심으로 변수를 선정하여 형식적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그쳤다가,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적합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관련 서적만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거나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심층면담(인터뷰)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지향적인 영역이나 변화가 예상되는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4.1. 용어의 활용과 학문의 범주화 재설정

한국에서 경호학은 시큐리티 서비스(Security Service)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Security'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는 적용되는 뜻이 엄격히 구별된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신변보호'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는 '치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5]

이러한 관점에서 시큐리티의 대상은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군(軍)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으며, 활동의 범위는 경호, 경비, 보안 등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큐리티는 공경비와 민간경비라는 벽이 없다. 21세기의 현 시대는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세계화라는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영화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고 추세이다.

그러므로 경호학은 시큐리티(security)라는 개념을 공적, 사적 또는 개인, 사회 등 특정 영역으로 범주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safety)과 관련지어 자연재해나 생활사고 및 상해사고까지 다루려는 시도 또는 자연과학에 기초하여 무도나 체육에 치우쳐 다루게 되면 경호학의 학문적 범주화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오히려 학문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호학에 관한 연구는 현 학문의 십자로에서 기본적으로 'Security'라는 용어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4.2. 학적체계의 확립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 협회 등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전공영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호학은 현재 종합학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경식(2010)은, 한국의 경호학은 학문의 발전단계인 태동단계(normal phase), 교류단계(network phase), 응집단계(cluster phase), 전문화단계(speciality phase) 가운데 교류단계를 넘어서서 응집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면서, 경호학문은 전공영역이 전문화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2]

이처럼 경호학은 학적체계가 명확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호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호학과 산업계의 현실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학문은 산업계의 현실과 미래의 변화를 토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호학의 학적체계는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 속하여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찰의 관리·감독(경찰행정) 하에 있고, 민영화의 확대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학은 행정학의 한 부분으로 전개되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

두원(2007) 교수도 경호학은 여타 학문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수행정학으로서 그 정체성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4.3. 교육체계의 구축

경호학의 교육체계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 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효과 등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을 학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체계로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두도록 동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호학에 맞는 교과과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 교육내용을 실무지향으로 가야할지, 이론지향으로 가야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경호업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방향이 실무교육 중심이 아닌 학과 및 교수요원들이 입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로방향이 경호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인식하여 경호학의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해야 하고, 교육의 목적 또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호학의 교육의 목적이 2년제와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등 각 과정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일치해야 하지만, 교육에 대한 전술적 목적(objective)은 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따라서 전문·특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경호경비현상을 연구하고 비교적인 관점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경호학을 토착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원용하더라도 우리의 관점과 방법론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석하려는 노력 또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4.4. 연구영역의 체계성 확립: 연구영역의 다양성과 양질의 연구를 위한 모색

어떤 학문이든지 학자들로부터 주요(主要) 연구대상으로 시도되는 영역은, 사회학의 경우 사회의 이슈와 동향, 예측되는 변화 등일 것이다.

경호학이 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이거나 일반화된 문제점들을 도출하려하기 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특히, 경호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학적 차원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산업계보다 앞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통찰력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호학의 1세대가 2세대를 양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산업계와 선진국들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경비협회가 주도하여 역할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현 시대는 매우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타임전쟁(war of time)’이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소화할 수 있는 시큐리티 아이টে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영역도 이제는 국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는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이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분야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의 정립을 위한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경호학에 대한 학문적 개념과 연구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security)라는 용어에 근간을 두고 학문적 영역과 연구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즉, 공적, 사적 또는 개인, 사회, 국가 또는 공·사협력 등을 모두 Security 영역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큐리티 분야에서 안전(safety)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나 생활사고 및 상해사고까지 범주화 하려는 시도는 경호학의 학문영역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되어 오히려 학문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 할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써 경호학에 관한 개념은 가능한 'Security'라는 용어가 갖는 개념이 사회과학 분야에 기초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을 선결과제로 삼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적체계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김경식(2010)은 경호학이 응집단계라고 평가했지만[2], 연구자는 아직도 교류단계와 응집단계의 중간이라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계를 지지할만한 학문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는 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기회로 삼아 산업화로 발전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경찰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이루면서 공동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써 경호학은 당연히 행정학에 근간을 두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호학은 지나치게 자연과학에서 '체육 및 무도분야'를 중시하려는 것은 여전히 경호학의 정체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경호학은 사회과학 학문으로써 활동영역과 특성에 따라 행정학의 하위 개념에 속해야 한다.

셋째, 교육체계의 정비부족 현상을 선결과제로 삼았다. 공배완(2006)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 스포츠 및 무도관련 과목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부나 대학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커리큘럼들도 전공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특성화 시키지 못한 실정에 와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호학이라는 특수성을 의식한 상태에서 학문이 요구하는 특성과 중요성을 따라야 한다.

대학이나 교수요원의 기관 및 개인적 특성에 학문을 적용시키려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수준에 따라서 전문화·특수화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을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삼았다. 안황권, 김상진(2008)의 연구에 의하면 11년간 경호학의 대표적인 학회에 게재된 225편의 연구 가운데, 민간경비와 관련된 순수 논문이 고작 14편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산업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호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따라서, 경호학은 연구영역의 다양성과 양질의 연구방향을 국내에 국한하면 안된다.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시큐리티 거버넌스화를 의식하여 경호학이 학문적으로 폭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제언

한국의 경호학의 학문적 배경은 다소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일성이다. 용어의 통일성은 학적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학적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호학이 민간경비의 서비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스포츠, 무도 등과 같은 계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게 되어 독립학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화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두 얼굴의 긍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경호학이 비록 반프로페셔널(half professional), 반사이언스(half science)이지만, 취업의 길도 많아지고 좋은 데 굳이 왜, 그렇게 구분하고 따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주장을 한다. 즉, 학적체계가 중요한가? 아니면 학생취업난 해결이 중요한가? 라는 견해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경호학이 반드시 무도나 휘트니스, 레저산업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가? 경호학은 그러한 분야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 본질이지 체육이나 레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학생들에게 경호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할만한 정당성이 과연 있겠는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전공대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는 않듯이, 진로는 개인의 선택적 영역이지 학문의 본질을 두 개의 얼굴화 시키는 것은 실적위주 사고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로에 대한 모호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학문의 질적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학문의 정체성과 학적체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리스크(risk)를 높일 뿐 학문의 위상을 높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에서 경호학이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을 본질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학적체계가 정확하다면, 교육체계, 연구 체계에 대한 문제는 저절로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경호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호학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제언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자들 간에 경호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진솔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진 않은가? 라는 시급함도 제시해 본다.

[5] 김영호(2006).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미동맹 재조정. 세계정치: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서울: 인간사랑. p.201.

[6]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의 미래 조망.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기획논문.

[7] 안황권·김상진(2008).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중심으로. p.201.

[8] 전성수(1992). 산업DESIGN의 학문적 위상정립을 위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제5권 제1호.

[9] 한국경호안전신문, 2007년 6월 1일자.

[10] 사이버경찰청, 검색일: 2012년 12월 14일

[저자소개]



김 상 진 (Kim-Sang Jin)

2001년 2월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체육학사
2003년 2월 용인대학교 경호학 석사
2008년 12월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
박사

email : ksj8004@naver.com

참고문헌

[1] 공배완(2006),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12호. pp.11~13.

[2] 김경식(2010). 경호경비 콘텐츠 학문의 연구동향. 한국콘텐츠학회 제8권 제3호. p.12.

[3] 김두현(2007).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 서울: 엑스퍼트. pp.683~774.

[4]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백산출판사. p.48.